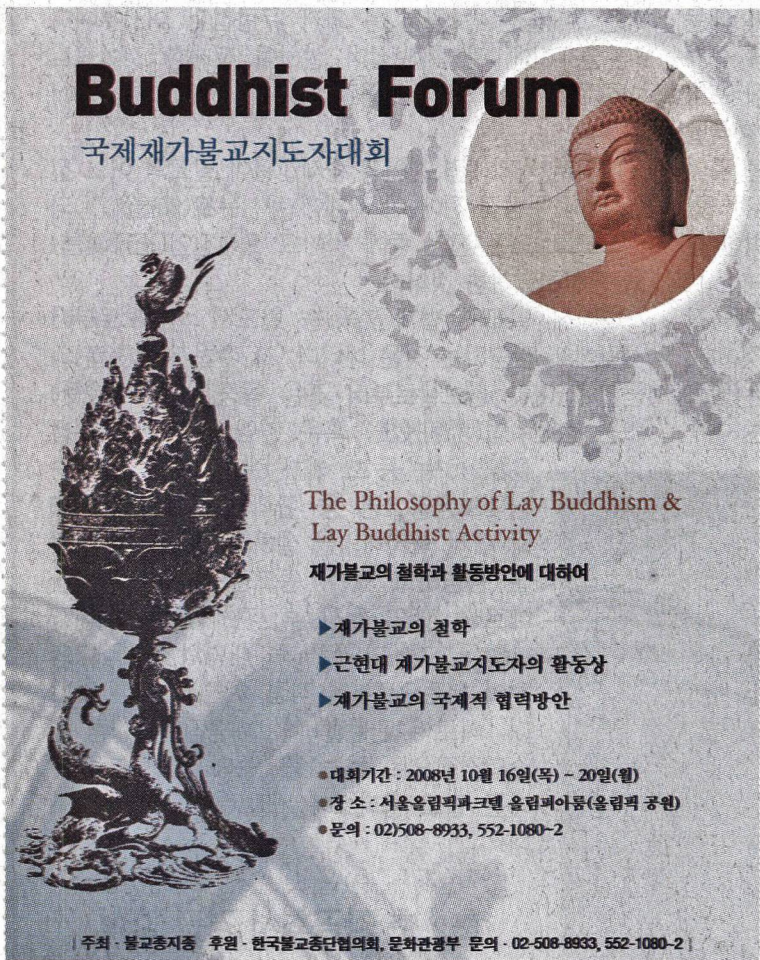




## 제2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16일부터

###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 주제



**Buddhist Forum**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The Philosophy of Lay Buddhism & Lay Buddhist Activity  
재가불교의 철학과 활동범위에 대하여

- ▶ 재가불교의 철학
- ▶ 근현대 재가불교지도자의 활동상
- ▶ 재가불교의 국제적 협력방안

• 대회기간 : 2008년 10월 16일(목) ~ 20일(월)  
• 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름(올림픽 공원)  
• 문의 : 02)508-8933, 552-1080-2

주최 : 불교총지종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문의 : 02-508-8933, 552-1080-2

불교총지종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서울과 강원도 원주시 등지에서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제2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총지종 교육원 주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부산대학교 후원)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엔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16개국 30여명의 재가불교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 관련 학자와 승려들이 대거 참여한다.

개막일 16일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의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17일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의견을 발표한다. 18일은 강원도 원주시와 상원사에서 템플스테이 활동과 주제별 토론, 19일엔 한국문화소개포럼, 전통문화공연 등이 마련된다.

대회조직위원장 화령 정사(총지종 중앙교육원위원장)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재가불교에 대한 사상을 정립하고 각국 재가불

들의 활동을 소개할 것"이라며 "이 행사가 생활불교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생활불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실천되어 불자들이 사회평화와 공존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회 관계자들은 "향후의 불교 포교는 출가승 위주가 아니라 재가불교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전 세계 재가불자를 연결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대회도 성공적으로 회향하고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재가불자들의 단결과 상호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생활불교종단으로서의 총지종을 전 세계에 홍보, 종단 위상제고와 포교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10면)

## 원정 대성사 28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 "대성사 유지 받들어 불퇴전 정진"



불교총지종 창종조 원정 대성사 열반 28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9월 8일 서울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현화 및 훈장정공, 추선사, 종조 육성법문, 창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선불사엔 서울 경인 교구 스승과 교도 등이 참석했다.

효강 종령예하는 추선불사 법어에서 "창종조 원정 종조님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말법시대의 무명을 밝히는 보살이 되어 종

단흥과 불교발전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령예하는 이와함께 "밀교는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교리를 갖기에 현재 이 자리에서 닦고 복락을 받을 수 있다"며 "생활시 불교의 기반을 닦으신 종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퇴전의 정진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밀법홍포의 대원을 부촉하신 대성사님의 큰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종조님의 사상과 교상 연구에 매진하자"며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재생의세의 정신으로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총지종을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하자"고 말했다.

현대한국밀교의 개척자이며 정통밀교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했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이다. 1980년 9월 8일 원적에 들기까지 대성사는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총지종과 진각종의 산과 역할을 하며 한국 현대밀교사의 수립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 자석사 만다라 불사 봉행

### "만다라 통해 신심 증장, 용맹정진 하길"



▲ 부산 수영구 자석사 만다라 불사가 9월 25일 봉행됐다.

총지종 부산경남교구 자석사(주교: 혜안정)가 9월 25일 만다라 불사를 원만 회향했다.

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대거 동참 가운데 열린 이날 불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그동안 불사를 위해 애쓰신 자석사 주교

이하 모든 교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이와함께 "진리 담체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상징하는 태장계, 금강계 양부만다라를 통해 신심을 받고 정진

할 때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 할 것"이라고 축원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대일경에는 하루 한 번 만다라를 친견하면 속세 죄업을 소멸할 수 있다고 설해져 있다"며 "장엄하게 조성된 만다라를 통해 교도 여러분의 수행심이 증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각사 주교 법공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이날 회향 불사에는 부산경남교구장 대원 정사, 각 사원 주교와 스승,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 신인록 회장, 각사원 신정회 간부, 만다라 합창단 등 스승과 교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9면 기고 / 관리장성 小考

10면 인터뷰 /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 종립 동해中 제 41회 개교기념식 거행

### 15,000 졸업생, 각계 주도적 역할



총지종 종립 관음화사 동해중학교가 9월 24일 오후 2시 해오름관에서 개교 41주년 기념을 거행했다.

총지종 원승 통리원장은 정각사 법공정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일만오천명의 졸업생 선배님들과 동문회, 재학생,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 명문사학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이와함께 "종립학교 학생으로서 부처님이 열어 보이신 행복을 질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하며 그 방법 중 하

나로 마음을 고요히 평화롭게 유지하고, 진언에 집중해 보라"고 당부했다.

동해중학교 김현우 이사장은 축사에서 "시대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선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이의 지혜를 모아서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해중학교 김 남 교장은 개교 41주년 기념사에서 "동해중학교 선배님들은 애교심으로 단합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 각계 각층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교기념식엔 석동훈 행정실장과 박성란 교사가 20년 근속자 표창을 받았으며 학생 6명에게 종단 장학금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엔 정각사 법공 주교와 부산 경남교구장 덕화사 대원 정사, 공덕성 전수, 도현 정사, 지인행 전수, 동창회 관계자, 학부모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 종조법설

### 부모에게 효순하라

형상없는 이불(理佛)을 믿고 깨닫는데 육체에 병이 없고 부모조상의 영식을 천도(薦度)하는데 현재 사업과 자손이 잘되며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순하는 데에 이어가는 미래 자손들의 효순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 종조법설 집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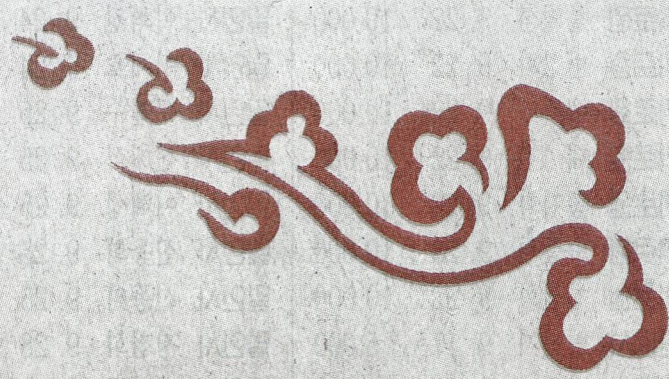
## 제72회 추계강공회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7년 10월 20일(월)~10월 24일(금)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원 승





풍경소리

그림자 놀이



어떤 사람의 정원에 크고 넓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드러누워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거나,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자나가던 석공이 바위에 불상을 새길 것을 권하기에 그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후 무심코 바위에 드러누웠다가 자신의 행동이 어쩐지 불경스럽게 생각되어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위는 고귀함도 속됨도 없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는 지금 그림자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문윤정(수필가)

향기 맑은 사람

박식한 사람의 귀는 보석 없이도 빛나고 배푸는 이의 손은 팔찌 없이도 빛나는 법 그대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몸에 바른 전단향 때문이 아니라네

- 황다연(시인)



그대에게는 그대 아닌 사람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이라네.

- 수비사(사) 인도잡언시집중에서

공존



세상에는 늘 한가지 문제에 여러 대안이 생깁니다. 물 한 가지를 두기도 사람은 물로 보지만 물고기들은 자기 집으로 보고,

천상 세계에서는 유리로 보고 아귀는 불로 본다 합니다. 놓인 상황에 따라 한가지 사물도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세계는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견해로 어울려 있습니다. 부조화 속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명상

웃으니까 행복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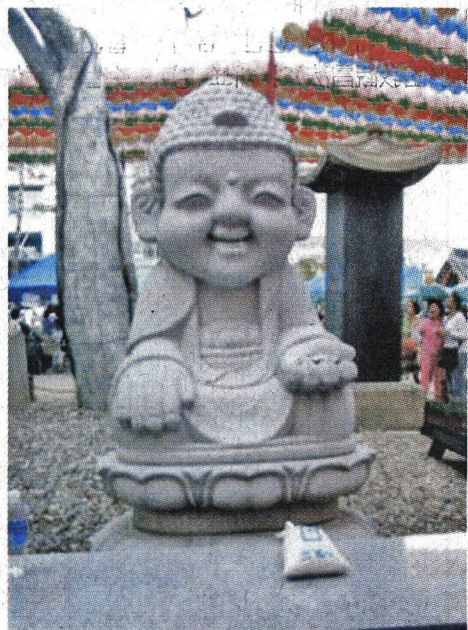
기분이 좋아야 웃지 어떻게 싫없이 웃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뇌는 웃는 시늉만 해도 실제로 웃는 것과 비슷한 생리 작용을 보입니다.

힘들고 웃을 일이 없을수록 활짝 웃어 보세요.

웃으면 얼굴이 바뀌고 골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웃으니까 행복해집니다.



- 관성사 박영자 스마일 보살님의 메일글입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미고

~전수경편 제32화~

글.그림/정수일

용, 용, 용... 더듬는 소리. 그게 비는 거냐? 빌려면 제대로 빌어

반죽이 없다고? 내 이놈의 자장면 집을 박살내 버릴 거야

얼른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이고 참으세요, 대성사님.

대성사님, 그 다음 9번째 원을 말씀해 주세요요~~!

호호~ 그래요?

각자님을 장하십니다! 9번째 원은 "원아속회무위사 (願我速會無爲舍)입니다.

"무위사" 라는 말은 무슨 일을 행하였어도 마음속에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술술 줄리네...

너무 어려웠나?

글... 아...

가난한 용군에게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헉! 감사합니다.

대성사님, 이 돈 정말로 제가 가져도 되는 거죠? 안 값아도 되죠?

기도로 마음의 고요를 얻는 중...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요? 난 용군에게 보시한 적도 없고 보사를 했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보사를 했다는 마음을 버렸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는데...

"원아속회무위사" 라는 뜻은 원컨대 내가 아무것도 함이 없는 고요한 무위의 경지에 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쉽지요? 아주 쉽게 말했는데...

정수일 홈페이지-http://www.drawing라울라.kr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 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나,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라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요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므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른다.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특히 황토는 중금속을 분리시키며 습도를 조절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항균, 방충, 생리 활성, 제독력 등의 효능이 있어 노화방지나 건강에 효과가 있다. 황토를 축조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하면 우리 옛어르신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등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능 때문이었으며, 이는 옛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중 요시 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문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 053-425-7910



①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② 변비가 심하신 분은 등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데워주는 모습 ③ 무릎,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의자에 걸터 앉거나 가볍게 올려 놓는다. ④ 옆구리 결림 등에 등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⑤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⑥ 머리가 무겁거나 뒷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⑦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⑧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때 사용모습(영치통 등)

만다리의 복지세상 ①

치매의 증상과 대처요령

이번호부터는 '만다리의 복지세상'을 연재합니다.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8%...

치매란?

치매란 뇌의 만성적 변화로 인해 기억력상실 및 지적기능의 상실, 행동이상, 인격변화 등이 일어나는 하나의 임상후군입니다.

치매의 증상

기억력 감퇴,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의 상실, 언어의 장애,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는 실행증...

1단계(1~3년)
● 기억: 새로운 학습의 장애, 장기 기억의 회상 장애

● 언어: 단어 활용의 저하
● 인격: 무관심, 공간에 과민성
● 정신과적 증상: 슬픔, 때로는 망상

● 기억: 단기, 장기 기억 모두 심하게 장애
● 언어: 이해는 하지 못하면서 수다스럽게 언어를 구사

● 계산: 상실
● 정신과적 증상: 망상의 두드러짐
● 운동기능: 종종 걸음, 좌불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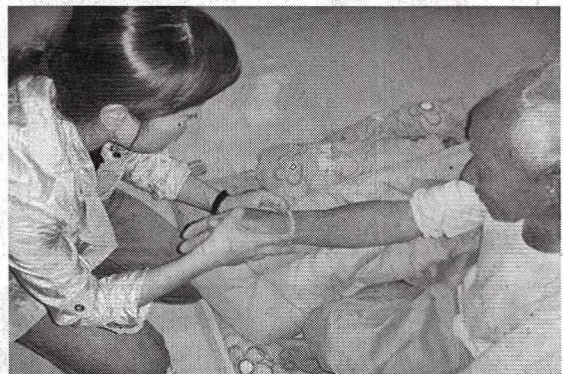
● 지적기능: 심한 장애
● 운동기능: 강직, 경직
● 노실금, 변실금

● SPECT: 전두엽의 대사 저하
● SPECT: 두정엽, 대사 저하치매에 있어서의 기억력 상실과 건망증의 근본적 차이는 하나는 병이고 다른 하나는 정상 노화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으로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치매와 건망증을 초기에는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치매에 있어서의 기억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하였거나,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을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두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으나...

또한 치매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설명되는 지남력과 판단력의 전반적인 장애를 일으키지만, 건망증은 지남력과 판단력은 대부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우미가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괴로운 일을 굳이 기억해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기억은 아마 쉽게 사라지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작용할 것입니다.

치매에 있어서 기억력 상실은 뇌세포와 기능 변화로 인한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전문의사의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

문제행동별 대처법

1) 자기 주변의 일을 처리 못하는 경우 도와주어야 합니다.
옷을 못 입을 때, 식사 방법을 모를 때, 목욕방법을 모를 때, 대소변 처리가 안될 때 → 무엇을 못하는지를 관찰한다.

한다.

2) 같은 일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안심하게 반복 설명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은 반복한다. 금방 잊어서 같은 일을 반복 질문한다. →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해소시킨다.

3) 꼼짝을 안 하려는 경우, 흥미를 가질만한 것을 생활에 도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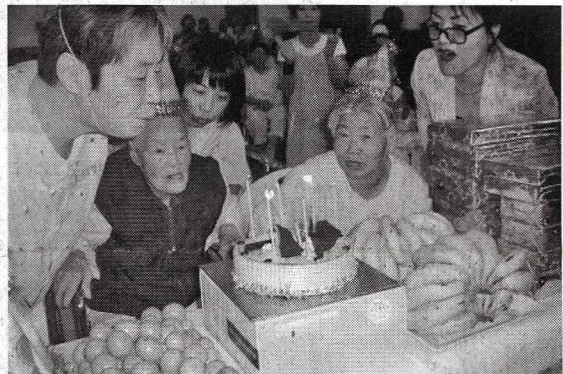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할 때 하는 방법을 몰라 하지 못할 때 말을 걸거나 동작을 제시하여 행동을 촉진 →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흥미 있는 것을 도입, 평소부터 생활에 도입하여 생활리듬이 있도록 설계한다.

4) 끊임없이 물건을 줌거나 모으는 경우 조금씩 치웁니다.

자신이나 집안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모은다. 집밖의 물건을 계속 주워 온다. → 본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치운다.

5) 가족과 떨어져서 안할 경우 간병인이나 주간 보호소에 참여시킵니다.

가족과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불안하여 자신의 행동을 더욱 잊어버린다. → 가능하면 옆에 있어 안심시킨다. 산책, 시장가기 등 가능한 일은 함께 한다.



▲치매노인들의 생일파티.

6) 하루 종일 불안해하는 경우 기분전환이나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줍니다.

안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닌다. 화장실을 계속 다닌다. 방안을 배회한다. → 신체검사를 시행 (변비, 가벼운 질환) → 재미있는 일,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준다.

지정 정사(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필자 사정으로 그동안 연재되었던 세계속의 불교 코너는 중단합니다.)

총기동의보감

피로는 만병의 근원



조선휘 원장
(여성美 한의원)

여성들 특히 직장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하는 경우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피로는 병으로 발전

한방에서는 피로를 허로(虛老)라고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과음, 과로, 운동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경우...

특히 여성의 몸은 피로에 쉽게 반응한다. 예를 들면 생리불순, 생리통, 두통, 변비, 소화장애, 기억력 감퇴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단계적으로 분류를 하면 초기에는 피로감·권태감·무력감·소모감 등의 주관적 증세가 나타나고...

고, 말기까지 진행하면 전신적 피로감으로 변하여 강한 탈력감·기면(瞋眠)·불면(不眠)에 빠진다.

더 진행될 경우 심장의 박동도 흐트러지고, 식욕부진·오한·발열·위장장애·정신불안 등 이들 증세가 각각 고장되어 질병으로 발전해 간다.

피로회복은 쉬는 게 최고

피로는 조금만 쉬면 쉽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피로에는 휴식이 좋다는 얘기의 반증이다.

한방치료로는 동의보감에 피로 예방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調基飲食(조기식) 즉 식습관 조절로 ▲배가 고프기전에 먹되 배불리 먹지 말고 ▲소식하되, 기름진 음식을 과식 않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섭취한다

둘째, 適基起居(적기거거) 적절한 수면과 활동 ▲너무 덮거나 춥게 자지 말고 ▲봄과 여름에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잔다 ▲충분한 수면(하루 평균 6~7시간)

셋째, 摠心息慮(총심식려) 마음을 밝히고 생각과 근심을 쉰다 ▲감정기복을 조절 ▲여가활동과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한다 ▲시간계획으로 업무량과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피로는 평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피로회복을 위해 쉬는 차원을 벗어나서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좋은 먹고, 자고,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준비소리

시예는 마음의 안정에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진리도 또한 알지 못하며 세상일에만 미혹된 자에게 바른 지혜가 있을 수 없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 즐겁고 뜻이 편하다. 성인이 말한 진실한 도를 지지는 항상 즐거워 한다.

〈법구경 法句經〉

Advertisement for '여성美' (Women's Beauty) clinic, featuring Dr. Jo Sun-hwa and a list of services like gynecology and fertility treatment.

Advertisement for '자경단(子經丹)' medicine,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various gynecological conditions.

A row of images showing various medical equipment and services offered by the clinic, including blood analysis, ultrasound, and specialized treatments.

## 지상설법



화령

(중앙교육원장)

# 불자는 재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

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네 몫으로 나누되, 한 몫은 자기의 생활에 쓰고, 두 몫은 사업을 경영하고, 나머지 한 몫은 가난해질 때를 대비하여 저축해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재산이 넉넉한 장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 재산 4몫으로 나눠 대비하라

"재산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이자를 돌려 가업을 번창시키고, 한 몫은 매일의 가정 살림에 넉넉히 쓰고, 또 한 몫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나머지 한 몫은 일가친척이나 오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쓰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절약과 검소로서 집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와 처자를 공양할 수 있게 되고 손님과 고승인을 돌보아 줄 수 있게 되고 친족과 친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임금과 사문, 도사를 받들어 섬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재물을 구하되 도가 아닌 것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정당한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 돈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쓰임새를 말씀하셨고 부자는 부자로서 보시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지 약간의 편리함을 줄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재산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하며 가엾게 여기어 그대들이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은 비록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가신도들도 이러한 말씀은 명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이지 그것이 궁극의 목적처럼 되어 죽는 그날까지도 재산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면 결국은 그 돈도 못 써보고 죽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지? 그렇다고 벌어 놓은 돈을 무조건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재산을 나누어 적절하게 쓰되, 보시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 절약과 검소로 집 다스리라

미국의 유명한 재벌 록펠러는 33세에 백만 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5세에 불치병이 걸려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다. 어느 날 최후 집진을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복도에 걸려 있는 액자에 '주는 자가 받는 자 보다 복이 있다.'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이상하게도 이 글귀를 보자 전율이 흐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선한 기

운이 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후회스러운 삶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고 의사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비를 먼저 내어야 입원이 가능한데 그 여자는 아마 입원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먼저 입원만 시켜 준다면 곧 입원비를 마련해 오겠다고 어머니가 애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록펠러는 가만히 비서를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입원비를 대신 내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소년과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록펠러는 너무 기쁘고 흐트렷했습니다. 록펠러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 순간에 록펠러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예전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자기의 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흐트렷하는 감정이 록펠러를 살리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후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으며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록펠러의 회고에 의하면 세계최고의 갑부가 된 55세까지는 쫓기는 삶을 살았던 나머지 43년은 행복한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베푸는 삶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것은 꼭 물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웃는 얼굴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여

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를 해서 우리가 즐거운 기분이 되거나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자비심이나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또 늘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면 몸에서 좋은 물질이 분비되어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이것이 요즘 과학 실험으로도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정당하게 재산 모으고 쓰라

반대로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성 호르몬이 나와 소화기와 심장, 생식기능 등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록펠러의 경우에도 그러한 자비심과 또 자비를 베풀고 스스로 흡족해하는 것에 의해서 몸의 저항력이 강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써야 할 재산에 대해 자기가 도리어 재산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을 낭비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맞고 어떤 말씀은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길을 전환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전에 나타나 있는 재가자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들은 물질 위주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되 쓰는 데 있어서도 잘 써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 ◇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나. 몸의 형상으로써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여래를 몸의 형상으로써는 볼 수 없습니다. 여래께서 몸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했을 때 부처님께서 수부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거짓이요 허망한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상이 있고 없는 양쪽에서 여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수부티는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뒤 둘째 오백 년대에 계행을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법문을 들으면 진실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들은 한두 부처님까만 귀의하여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몇 십만이나 되는 많은 부처님께 귀의하여 착한 일을 하였

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곧 청정한 신심을 내는 것이다. 여래는 지혜의 눈으로 그들이 한량없는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을 모두 알고 또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목숨이라는 집착이 없고, 법이라든가 법 아니라는 집착도 없고, 그들이 만약 마음에 망상 분별을 일으키면 나와 남과 중생과 목숨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데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가르침을 물 건너는 뗏목과 같이 알라'고 하지 않았느냐.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라." <금강경 金剛經>

### ◇ 중생 그대로가 진여

부처님께서 마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을 찾아가 병문안을 하도록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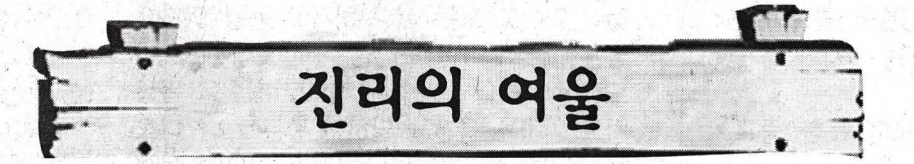
"부처님,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 옛날 도술선의 왕과 그 일족을 위해 깨달음을 얻는 수행에 관해 설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유마힐이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미륵보살님, 부처님께서 보살님이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애에 수기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과거, 미래, 아니면 현재입니까? 만약 과거의 생애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생애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미래의 생애라

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생애라 해도 그 현재는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태어나고 늙으며 죽어가고 있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생멸하는 미혹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수기를 이루는 것이라면, 생멸을 초월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경지이므로 여기에는 수기를 받는 일도 없고 깨달음을 얻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살님은 여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습니까? 보살님, 진여(眞如)\*가 생하는 것을 수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아니면 멸하는 것을 수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설사 진여가 생하는 것이 수기를 이루는 것이라 해도 거기에는 생이 없으며, 멸하는 것이라 해도 거기에 멸은 없습니다. 중생 그 자체가 진여이며 모든 존재가 그대로 진

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도 없고 또 물러서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신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대한 분별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유마경 보살품 維摩經 菩薩品> \* :우주 만유에 두루하여 상주불변(常主不變)하는 본체



여입니다. 따라서 보살님도 진여입니다. 만약 보살님이 수기를 받았다면 모든 중생도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여 그 자체는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보살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모든 중생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 그대로가 깨달음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기를 받았다고 설하여 천신을 유혹해서

◇ 깨달음 '미륵보살님, 깨달음은 몸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적멸이야말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모양을 없앴기 때문에 관찰하는 일이 없는 것도 깨달음이며, 생각이 없으므로 행하지 않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그릇된 소견을 끊어 없앤 것도 깨달음이며, 망상을 막는 것도 깨달음이며, 안팎의 모든 경계에 탐착하지 않는 것도 깨달음이며, 진여에 따르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사물의 본성에 머무는 것도 깨달음이며, 사물의 진실한 존재에 이르는 것도 깨달음이며, 마음과 마음이 파악하는 데

상에서 떠나 분별하지 않는 것도 깨달음이며, 허공과 같아서 평등한 것도 깨달음입니다. 생하고 지속하며 멸하는 일이 없으므로 무위도 깨달음이며,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아는 것도 깨달음이며 안팎의 경계를 만나 거기 영향을 입지 않는 것도 깨달음이며, 모양과 빛깔이 없으므로 일정한 위치가 없는 것도 깨달음인 것입니다. 거처 이름도 그 이름과 글자가 공한 것이므로 깨달음이며,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는 것도 깨달음이며, 항상 스스로 적정하여 혼란하지 않음도 깨달음입니다. 미혹을 떠난 경계도 그 본성이 깨끗하므로 깨달음이며, 반연을 떠났기 때문에 대상에 집착하지 않음도 깨달음이며, 모든 것이 평등하므로 다르지 않음도 깨달음이며, 비유할 수 없으므로 비교할 길이 끊긴 것도 깨달음이며, 모든 법은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미묘함도 깨달음인 것입니다.' 부처님, 유마힐이 이같이 설할 때 천신들도 진리를 깨달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유마경 보살품 維摩經 菩薩品>

## 충지종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혼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착상위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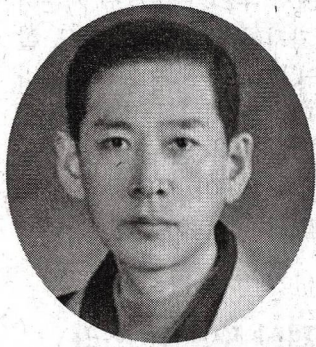
**프로그램**  
학습활동: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일일1회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을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바라밀지역아동센터

기고

# 재가불교의 나아갈 길



서형

(청주 혜정사 주교)

출가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재가자를 배척함으로써 불교의 위상이 찾아질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춘 재가자의 지위와 역할이 보장됨으로써 불교의 위상과 재가자의 위상도 찾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출가자와 재가자는 상호 구도자(求道者)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대승불교 지도자들이 몇 백 년이 지난 후에도 정통의 지위를 찾게되었듯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출가와 재가의 엄연한 차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불교를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며, 사부대중 화합의 길을 찾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의 하나인 유마경은 재가보살의 대도(大道)를 밝혀주는 요체로 평가받고 있다. 문자 그대로 세속(世俗)의 거사

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의 불교는 공업중생인 동시대 중생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앞과 뒤의 시간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함께 굴러가지 않으면, 안되는 동시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불교가 상구보리만을 추구한다면 마땅히 경계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다. 하화중생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뒤에 감춰진 구조적 진실까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실로 근기에 맞는 법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 공업중생의 삶을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서 온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생구제의 보살행은 대승의 오랜 전통이다. 사회화 되고 보편화 된 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중생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것이 재가불교의 개념이라 하겠으며, 이는 만큼 실천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불교적 표현인 것이다.

깨달았다는, 또 공부했다는, 본성을 찾았다는 사람이 남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탁하게

## “생활과 불교 함께하는 전법도량 돼야”

### “종교보다 중요한 것은 연민”

인 유마경사는 부처님 법의 묘(妙)에 통달해서 삼계(三界)의 집착을 떠났고, 처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재가보살의 전형이었다. 가난한 이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고, 이교도를 보면 바른 도를 가르쳤으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술집과 놀음판도 마다하지 않았으니 언제나 바른 자세와 정기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의 잘못된 수행과 처신을 가차 없이 질책 했으며,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유명한 법문을 통해 중생과 더불어 사는 재가보살의 수행과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이 모두 각각의 중생들이 처한 맥락에 맞는 즉, 근기에 맞는 법문이었듯이 지금 불교가 사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근기에 맞는 메시지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 부처님 당시의 삶의 모습이 물론 오늘날처럼 복잡하지는 않았겠지만, 부처님께서 사회 문화적인 구조에서 오는 고통까지 모두 파악하셨기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이는 해탈의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것

한다면 그 깨달음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21C 재가불교가 나아갈 길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지향해야 하는 점이며, 생활과 불교가 나눠지지 않는 전법도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불교는 사회의 문제를 통찰하고 불교적 해법을 제시할 내부능력이 빈약하다. 교단의 주류는 돈, 권력, 조직과 같은 세간적 운영기제가 지배적이다. 이런 현실을 헤쳐갈 해법은 통찰과 실천인 것이다.

재가불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은인자적하지 말고 중생의 삶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알아야 한다.

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가초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민이다.” 지금 세상은 종교라고 하는 전통의 틀보다 연민, 자비와 같은 인간을 돌보는 가치가 더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

오늘의 한국불교가 ‘연민보다 못한 종교’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종교보다, 교단보다, 내가 승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에 대한 연민이다. (\*이번호 알기쉬운 밀교상식은 필자시정으로 합니다.)

불교설화 <27>

# 용궁에서 온 강아지

## 합천 해인사(海印寺)

여든이 넘는 늙은 내외가 가이산 깊은 골에 살고 있었다. 자식이 없는 이들 부부는 화전을 일구고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서 산새와 별을 벗 삼아 하루하루를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을 먹고 도토리를 따러 나서는 이들 앞에 복실복실한 강아지 한 마리가 사립문 안으로 들어섰다.

1년 내내 사람의 발길이 없는 깊은 산중이어서 좀 이상했으나 하도 귀여운 강아지인지라 좋은 벗이 생겼다 싶어 붙들어 키우기로 했다. 노부부는 마치 자식 키우듯 정성을 쏟았고,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랐다.

이렇게 어린 3년이 흘러 강아지는 큰 개로 성장했다. 꼭 만 3년이 되는 날 아침,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밤을 쥐도 눈도 돌리지 않고 먹을 생각도 없던 개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저는 동해 용왕의 딸인데 그만 죄를 범해 이런 모습으로 인간세계에 왔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속죄의 3년을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용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분의 은혜가 하해 감사운이라 수양 부모님으로 모실까 하옵니다.』

개가 사람이며 더구나 용왕의 딸이니 놀랍고도 기쁜 일이었다.

『우리는 너를 비록 개지만 자식처럼 길러 깊은 정이 들었는데 어찌 부모 자식의 의무를 벗겼느냐?』

개는 이 말에 꼬리를 흔들며 말을 이었다.

『제가 곧 용궁으로 돌아가 아버지 용왕님께 수양부모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님께서 12사자를 보내 수양 아버님을 모셔 오게 할 것입니다. 용궁에서는 용궁선사로 모셔 극진한 대접을 할 것이며 저를 키워주신 보답으로 무엇이든 맘에 드는 물건을 가져 가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두 싫다 하시고 용왕 의자에 놓은 『海印』이란 도장을 가져 오십시오. 이 도장은 나라의 옥새같은 것으로 세번을 푹푹 치고 원하는 물건을 말하면 뭐든지 다 나오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생을 편히 사실 것입니다.』

말을 마친 개는 허공을 3번 뛰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노인은 꿈만 같았다. 이런 일이 있는 뒤 얼마가 지나 보름달이

중천에 뜬 어느날 밤이었다. 별안간 사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12마리 사자가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용왕께서 노인을 모셔 오십니다. 시간이 바쁘오니 어서 가지지요.』

노인은 주저치 않고 따라나서 문밖에 세워 놓은 옥가마를 탔다. 사자들은 바람처럼 달렸다. 얼마 안 있어 가마는 찬란한 용궁에 도착했다.

산호기둥, 황금대들보, 추녀에 달린 호박구슬, 진주벽 등 형형색색의 보화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9채의 궁궐 모두가 이런 보물로 장식됐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가운데의 궁전으로 노인은 안내되었다. 노인은 그저 얼떨떨했다.

『아이구 수양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제가 바로 아버님께서 길러주신 강아지입니다.』

예쁜 공주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노인을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떠나시기 전에 용궁의 보물을 구경하시다가 무엇이든 맘에 드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불현듯 『海印』을 가져 가라던 공주의 말이 떠올랐다. 보물 창고에는 물건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다. 순금의 왕관, 금강석 화로, 옥가마, 산호초피리, 은구슬 말 등 진귀한 보물을 보고도 구경만 할뿐 달라지를 않으니 용왕은 이상했다. 구경이 다 끝나갈 무렵 노인은 까만 쇠조각처럼 생긴 『海印』을 가리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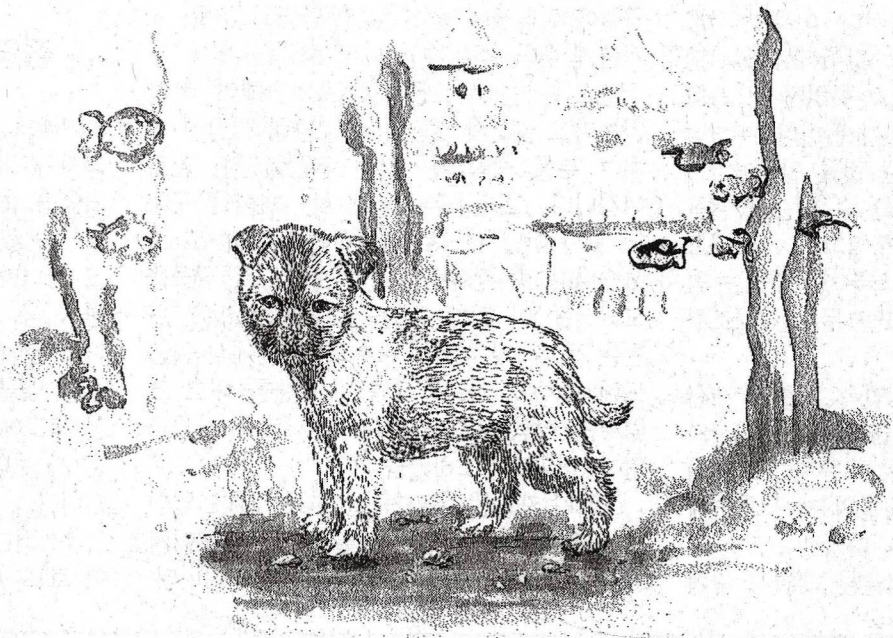
『용왕님, 미친한 사람에게 눈부신 보배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니 저것이나 기념으로 가져 가겠습니다.』

노인의 이 말에 용왕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분명 귀중한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용왕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허 참! 그것은 이 용궁의 옥새로써 정녕 소중한 것이요. 허나 무엇이든 드린다고 약속했으니 가져 가십시오. 잘 보관했다가 후일 지상에 절을 세우면 많은 중생을 건질 것이 옵니다.』

용왕은 해인을 집어 황금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노인에게 줬다. 이튿날 노인은 용궁을 떠나왔다. 용왕부부는九重 대문밖까지 전송했고 공주는 쪼가마까지 따라와 작별의 눈물을 흘렸다.

『수양 아버님 부디



반긴다. 아름다운 풍악이 울리자 용왕이 옥좌에서 내려왔다.

『먼길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딸님을 삼년이나 데리고 계셨다니 그 고마움 어찌 말로 다하겠습니까.』

용왕 넓은 자리에 용왕과 노인이 나란히 앉아 좌우 시녀들이 풍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음식상이 나왔다. 공주는 한시도 수양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금강저로 음식을 고루 집어 입에 넣어 주며 수양 어머니 문안과 함께 가이산의 지난날을 회상했다.

입에 들어만 가면 슬슬 녹는 산해진미의 음식 맛은 천하 일품이었다.

이렇게 용궁에서 지내기 한달, 노인의 풍채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노인은 갑자기 부인 생각이 나서 돌아가고 싶었다.

『먼길 다시 오기도 어려운데 오신 김에 조금만 더 쉬다 가지지요.』

『말씀은 감사하나 아내의 소식이 궁금하여 내일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용궁과 인간세계는 서로 다르니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겠군요. 부디 『해인』을 잘 간직하시어 편히 사세요. 그것으로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되길...』

공주는 목이 메어 말끝을 흐렸다. 노인도 이별의 아쉬움을 이기지 못한 채 가이산에 도착했다. 노인은 아내에게 용궁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해인을 세번 두들겼다.

『내가 먹던 용궁 음식 나오너라.』

주문과 함께 산해진미의 음식상이 방안에 나타났다. 내외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뭐든지 안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편히 오래오래 살던 내외는 죽을 나이가 되어 절을 지었으니 그 절이 바로 지금의 합천 해인사다.

노인들은 죽게 되자 자식이 없어 이 『해인』은 해인사에서 보관시켰으며 이 전설에 따라 절 이름을 해인사라 불렀다 한다.

-심일화



##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치매 증후 예방 및 치료	*장내 유해세균 억제
*항산화 효과 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달모방지, 발모촉진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서울대, 경희대, 전북대, 원광대 연구발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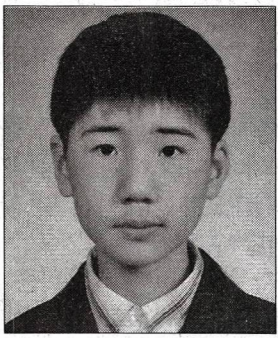


\* 가격: 복분자 엑기스 ₩40,000 복분자주 ₩25,000 \* 2병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총지문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희망은 있어요”



홍준영 동해중 2-1반

이 책은 언젠가 부모님이 사 오셨는데 읽지 않고 있다가 방학 전쯤에야 읽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표지부터가 아주 흥미롭다. 겉표지 밑쪽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수석 졸업, 프린스턴 대학 수석 특차 합격까지' 나는 이 글귀에 정말 흥분이 되었다. 머릿속에 무의식 적으로 동경의 대상이었던 한국과학영재학교. 그리고 공부를 엄청 잘해야만 갈 수 있다는 프린스턴 대학까지. 나는 이 책의 내용을 넘길 때마다 나의 생활모습과 김현근 형의 생활모습을 비교해 보았다.

스토리에 그 형은 그때부터 유학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그 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같은 준비를 했다. 물론 초등학교 점수는 내신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자신의 자신감을 길고 공부한 것이다. 그 덕분에 올백, 많으면 하나를 틀려서 전교 일등을 놓치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또한 1등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일단 공부 잘하는 이미지를 보이려고 반 편성 고사에서 1등을 하지는 계획을 했다. 공부를 잘하는 이미지를 보이려면 선생님들도 자신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중학교에서도 일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 덕에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서류전형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당황했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답을 썼다. 그나마 '창의력 경시대회'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고,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를 썼다. 딱히 이 시험은 선형학습을 한다고 해서 잘 풀 수 있는 유형은 아니었다. 2차 시험을 끝내고 나서, 허탈한 기분으로 패장병의 목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2차 시험을 보고 난 뒤 '정말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하지만 2차 시험 결과 날이 다가왔다. 과학영재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조화를 보는데 순간 어리둥절 하는 순간이었다. 합격 된 것이다. 3차 시험

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의 핵심 개념 정도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물리 관련 서적을 읽었다. 물리에 대한 개념이 쌓이는 것도 있었지만 물리에 대한 흥미도 느끼게 되었다. 드디어 3차 시험 날이다. 이제 2차 시험까지 합격했으니 3차 시험에서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할 확률은 2/3이나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면접 후 형은 마침내 입학했다. 3박 4일 동안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영재학교에서 3년간 또다시 피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하버드 대학이 '특이한 학생'을 뽑는다면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고 말할 정도로 프린스턴 대학이 어쩌면 하버드 대학 보다 들어가기가 힘든 대학일지도 모른다.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형은 모든 학점을 A+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대부분 A+를 받았다. 그리고 정말 잘난, 공부의 신들의 위에 수석졸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도 물론 합격을 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를 읽고

는 무리 없이 통과하고 2차 시험을 준비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살벌하다 할 만큼 열정적이었다. 남은 기간은 완전히 올인 해서 시험을 준비했고 영재학교 관별시험은 역시나 일반시험처럼 공식을 외우고 있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왔다. 물론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경시대회의 경험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고민을 하면서 문제에 다가가는 방법을 익혔다고 해야겠다. 그 점은 정말로 유용하게 작용했다.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문제도 많이 나왔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과학 시험을 보았는데, 바로 여기서 형은 여기서 절망 할 수밖에 없었다.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가스를 안전하게 수면위로 운반하는 방법을 묻거나 달의 위상 사진을 제시하고 위상 사이의 시간을 예측하라는 식의 생전

은 3박 4일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학캠프를 하면서 진행된다. 시험만 사흘을 치는 것이다. 먼저 과학 논술을 보며, 각각 9시간에 걸쳐 수리, 물리 분야와 화학, 생물 분야의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 시간에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선생님과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한다. 발표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2차 합격을 안 것과 동시에 형은 도서관에 가서 과학 잡지들 최신 1년치를 모조리 탐독했다. 과학 잡지에는 최신 과학 소식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과학 지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과학 지식을 습득하면서 3차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도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선행 학습을 요구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지만 과학

잡지 잘난, 공부의 신들의 위에 수석졸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도 물론 합격을 했다. 난 이 책을 보고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실감이 잘 안 나기에 나와 비교를 해 보았다. 나 또한 나름대로 시험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올백을 받아 본적이 없다. 그렇다면 김현근 형은 얼마나 노력했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틀어 한번을 제외하고 전부 올백을 받았는지. 나는 이 책을 읽고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었다. 하지만 역시 서류전형도 통과하지 못할 나한테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꿈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영재학교는 아니지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도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이야기

연꽃 아이



박상달 동해중 교사

십오야에 달이 종천에 감기면  
등근 속살 사이로 드러내는  
본홍빛 정한수  
억겁의 연으로 땅에서 피지 못해  
연생의 수로에서 솟아올라  
사는  
너 이승의 고운 연본아  
달빛 하얀 계절에  
맨살을 드러내고  
평화를 들춰 내는  
너의 그 정갈한 바람 소리  
잠들어 서늘한 책은  
은빛 가득한 달밭에서  
내 너의 보드러운 속살을 간지른다.

[필자소개]

경북 안동 출생, 시인, 시조시인  
삶터문학 신인상으로 등단(2003)  
전국시조백일장 장원으로 시조시인 등단(2004)  
(새미시) 동인, (시조사랑) 동인  
부산시조시인협회 이사,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  
부산문인협회 회원, 청소년문예진흥회 회원  
책읽는부산사람들 모임회장  
전국독서새물결모임 부산회장  
한국도서관협회부산협의회 이사  
현 부산 동해중학교 근무

이달의 추천도서

붓다의 향기

편집부 지음/ 운주사



현 대에도 유효한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 지극히 일부분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

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간추린 책이다. 『아함경』, 『법구경』, 『숫타니파타』 등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 서 우리네 삶과 수행에 자국이 되고 경책이 되는 내용을 한 호흡에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짧은 것들로 가려 뽑았다. 이 책에 수록된 삶의 본질들에 관한 통찰을 통해 일상 생활서의 지침으로, 마음 다스리기의 지침으로 삼을만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세  
남 81세 · 법  
남 56세에 열  
반에 드신,  
청화(淸華)  
큰스님 법문  
집. <마음의  
고향> 시리즈  
제1권 순선

안심법문 편은 1995년 1월, 미국 삼보사에서 있었던 순선안심탁마법회 중 청화큰스님의 말씀과 친필 법문을 정리한 것으로,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참선의 자

마음의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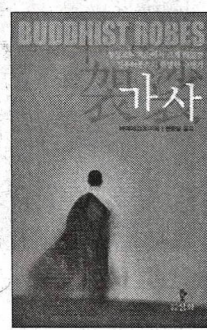
청화 큰스님 지음/ 상상예찬

세로 업 대신 덕을 쌓으면 부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큰스님의 여부와 표현법을 그대로 살려두어 마치 직접 말씀을 듣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사

바이이 지음/권중달 옮김/ 삼화

이 책『가사(伽藍)』는 청장교원 설산(雪山)에서 크게 득도(得道)한 진푸티종스(金菩提宗師)의 아주 특별한 수행기이다. 진푸티종스는 중국 허베이성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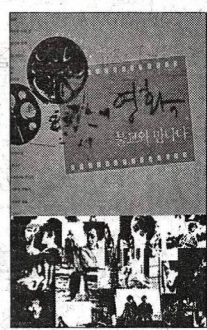
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다. 특히 그의 집안은 중국의 공산 체제 아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는 겪어야 했던 억울함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높은 스승을 만나 무술을 연마한다. 이러한 무공의 수련은 무예기능의 수련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련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좌선(坐禪)을 통한 높은 정신적 경지에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여 수련의 목표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였는데, 좌선의 과정 속에서 원수를 갚는 일이 결국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될 것이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하였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늘어 간다는 데 생각이 미치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삶의 궤적을 택하게 되었다.

영화 불교와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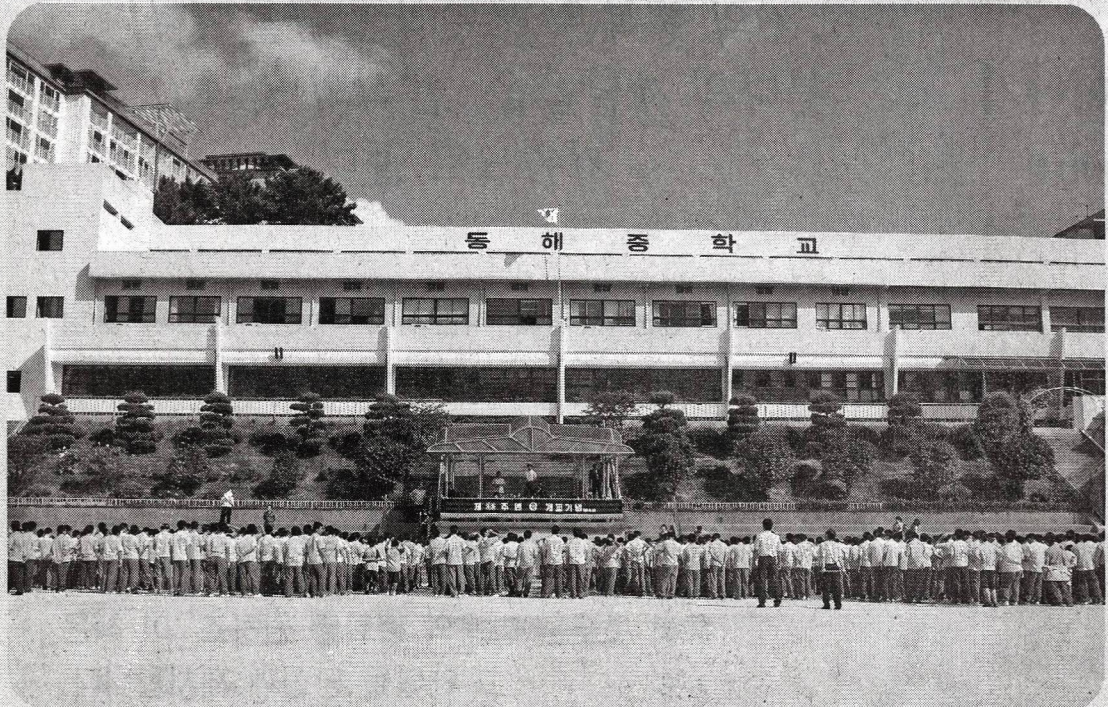
유응오 지음/ 아름다운 인연

불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영화 52편을 새롭게 해석하고, 불교와



영화와 불교의 교집합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평을 넓혀 불교와 기독교, 나아가서는 불교와 서구철학이 만난 경계까지도 모색한다. 책 속에서 주요 텍스트로 언급되는 영화는 총 52편으로, 저자는 불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예술영화와 일반 대중영화를 분석하고 있다.

개교 41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 교훈 : 창조 · 협동 · 경애
- 교목 : 보리수
- 교화 : 장미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창립

### “기부는 선행이 아닌 습관”



◇9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아름다운 동행' 창립식.

불교의 대사회활동을 담당할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창립식이 오늘(9월30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교육원장 청화스님, 포교원장 혜충스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불교계 내 기부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창립식에서 이사장 지관스님은 “그간 조계종은 종교와 이념, 인종과 국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동체大悲사상을 실천하고자 사회 공익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창립하게 됐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 공익을 위해 투명하고 여법하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부는 선행이 아니라 습관으로 연세가 돈 많이 벌면 좋은 곳에 기부해야지 하는 생각은 안된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상 속에서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십시일반으로 봉사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사회부장 세영스님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신복스님, 김&장 법률사무소 박정규 변호사, 이명목 동국대의료원장, 태양금속 공업 한미영 부사장 등 이사들과 김봉석 감사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한편 새롭게 설립된 '아름다운 동행'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국내의 재난 구호를 비롯해 복지·통일·환경·국제사업 등의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소외계층지원기금을 조성,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연계해 어린

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후원할 계획이다. 또 굶주림을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해 의식주 및 의료, 교육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환경운동기관과 연계해 환경보전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국제개발교류기금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도 추진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은 최근 홈페이지(www.theranum.org)를 개설하고 후원자 모집에 나섰다. 또 서울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약 1000개소에 3000개의 저금통을 배포해 소액모금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네모의 꿈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일매일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365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찰을 직접 방문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중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동화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대회 준비 모임

## 종단협, 대구·경북 규탄 아닌 결의대회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30일 서울 하림각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과 관련한 대구·경북 지역대회에 적극 동참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종단협은 또 대구·경북 지역대회 실무소위원회를 10월 7일 오후3시 동화사에서 열리는 실무소위에 대회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하되, 종교차별금지법 제정과 종교편향 종식, 호법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의 성격으로 치른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범불교책임위원장 원화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이 대회 장소를 대구시내와 두류공원 등에서 한 곳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사회는 동화사 경내를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동화사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이사총단을 현재의 6개에서 10개, 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각종 등 4개 종단 및 종단대표가 이사총단 및 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상임이사 증원에 대해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수스님 등이 “회비를 받기 위해 늘린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증원 배경이 궁극적이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사무총장 홍파스님은 “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운영 등으로 여러 이사들의 참여와 협력의 있어야 한다”며 통과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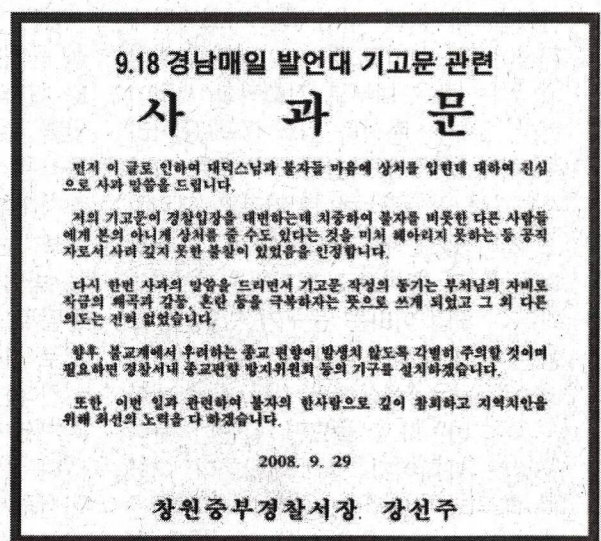
이날 종단협 총회에서는 또 회비 미납 종단에 대한 징계의 건도 논의했다.

## 엘리스증후군 망언 창원증부서장, '사과' '공직자로서 사려깊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증후군'이라 지칭한 지방 일간지 기고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선주 창원증부경찰서장이 9월 30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강선주 서장은 30일자 경남도민일보 12면(문화면) 하단에 “이 글로 인하여 대덕스님들과 불자들 마음에 상처를 입힌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썼으며, 이번 주 안으로 '불교신문'에도 사과문을 낼 예정이다.

사과문을 통해 “경찰 입장을 대변하는 데 치중해 불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등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향후, 불교계에 서 우려하는 종교 편향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경찰서내에 종교편향 방지위원회 등 기



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주 서장은 9월 18일 '경남매일' 발언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증후군'이란 제목의 글에서 “지난 촛불시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 총무우녀장 처량에 대한 검문검색은 법치의 잣대에 비추어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처량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2008. 9. 29  
창원증부경찰서장 강선주

## 1300년 전 신라의 미소 국보급 통일신라시대 삼세불 공개돼

### 소장자 "65년 아버지가 발서 발견...장롱에 보관"



찬란한 불교 문화만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국보급 통일신라시대 삼세불이 공개됐다.

삼세불의 정식 명칭은 '개원3년명석조삼세불입상(石造三世佛立像)'으로 '대당 개원 3년(大唐開元三年·715년)'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소장자 정모씨 부친이 1965년 경주시 소재 밭을 일구던 중 수습한 것을 장롱에 보관하다 공개한 삼세불은 높이 42.6cm×넓이 29.7cm×깊이 11.7cm 크기다.

여의주를 든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한 본존불(현세불)을 중앙으로 좌우 협시불은 합장인(合掌印)을 하고 있다. 삼세불 모두 하나의 연꽃위에서 올라온 세 개의 연꽃위에 나란히 서있는 일경삼존(一莖三尊) 양식을 갖췄다.

불상에는 '대당 개원 3년 4월 5일에 유거는 아버지를 위하여 삼가 삼세불 일구를 조성한다(維大唐開元三年四月五日居居爲父敬造三世佛一軀)'는 내용이 새겨져 유거가 임종을 맞은 부친을 위해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신라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불상으로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으로 국보급으로도 손색 없다는 평가를 했다.

한편 원광대 대학원 양은용 원장은 최근 <문화사학> 제29집에 '통일신라 개원삼년명(開元三年銘) 석조일경삼존삼세불입상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통해 삼세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발굴조사기관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조항과 보호물·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절차 조항 등도 개정했다.

## “문화재 발견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9월 29일, 문화재보호법 개정령 시행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경우)은 문화재발굴 포상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9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발굴 포상금은 그동안 발굴 문화재 가치

에 비해 포상금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으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활성화와 해외 유물 불법인양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발굴조사기관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조항과 보호물·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절차 조항 등도 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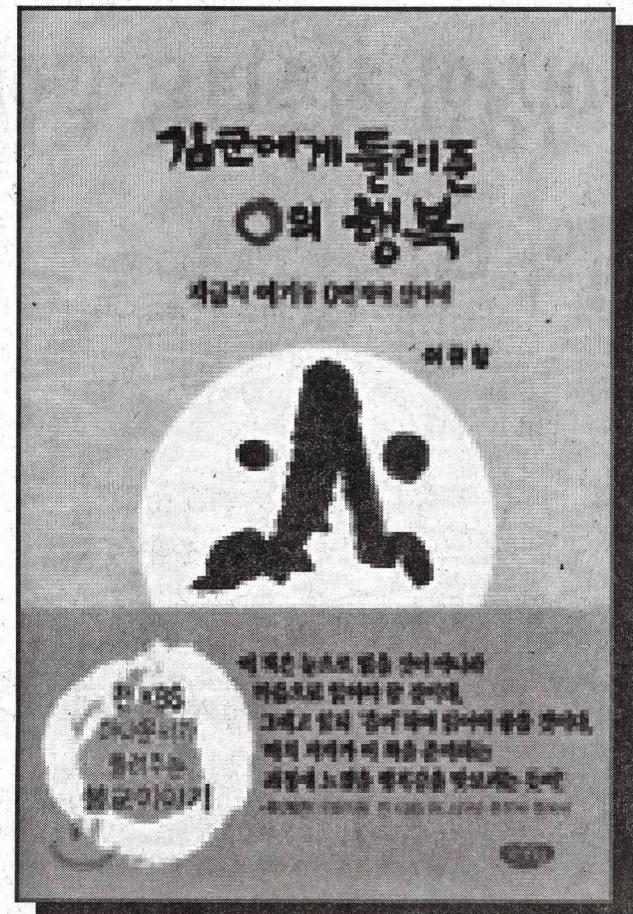
## 진각종, 진호국가불사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정사)은 오는 6일부터 11월23일까지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49일 진호(鎮護) 국가불사를 봉행한다.

진각종은 “종교편향과 차별 등으로 대두된 불교계의 현안을 주시하면서 불교의 전통적 가치인 중도(中道)와 화합(和合)을 구현하고자 49일 진호국가불사를 봉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 9월23일 밝혔다.



# 『김군에게 들려준 0의 행복』



전 KBS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 이규향 지음/글누림/값9,000원

0의 행복은 행복의 황금률이다!  
붓다의 깨달음을 '음식의 맛과 0'의 키워드로 풀다!

이 책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읽되 '음미'하며 읽어야 좋을 것이다. 마치 저자가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느꼈을 행복감을 맛보려는 듯이!

깊은 사려와 직관에서 비롯한 영혼의 울림  
-석성우 스님 (불교TV회장)

석가모니부처님의 밥의 향기와 0의 행복 가득 담긴 이 책을 보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광수 (중국 북경방송 CRI교수)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죠. 이 책은 그 해답을 당신께 제시합니다.

- 이계진 (국회의원, 전 KBS 아나운서) 추천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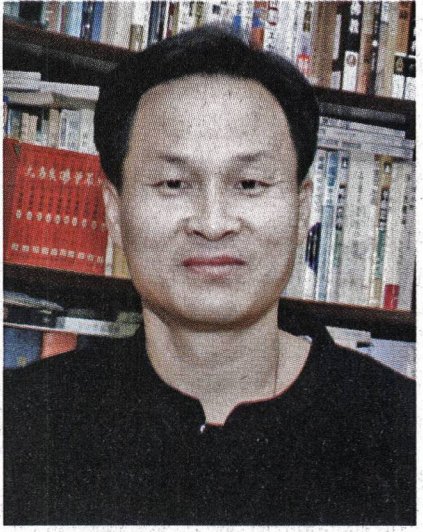
-손범수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나의 마음자리는 어디일까를 가늠하며 한번더 꼼꼼히 읽어볼까 합니다.  
-정은아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총지 FOCUS /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앞두고

# “재가불교 위상 정립, 진정한 생활불교 실천”



대회 조직위원장 화형정사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에 걸쳐 거행되는 세계불교지도자대회를 앞두고 본 대회의 조직위원장인 중앙교육원 화형정사에게 대회 개요와 일정, 준비과정 등에 대하여 들어본다.

▶ 화형 정사님 안녕하십니까?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의 개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라는 타이틀에서 보시듯이 이 대회는 각국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이 모여 현대사회에서의 재가불교에 대한 사상을 정립하고 활동방안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대회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출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왜하면 출가를 하더라도 옛날처럼 속세와 어느 정도 격리되어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른바 사찰 대부분이 관광지화 되어 있고 수행하기 좋은 한적한 곳은 이미 등산객들이나 향락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더구나 웬만한 사찰에는 텔레비전, 인터넷이 다 있고 휴대전화 없는 스님도 드물거든요. 그러니 출가를 한다고 해도 옛날과 같은 환경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사찰을 운영하려고 해도 소방방화법이나 산림법이나 세법이나 해서 세간법도 많이 알아야 하고 또 수행한다고 대중들과 격리되어 있다가는 시대의 흐름에 너무 뒤떨어지게 되어 포교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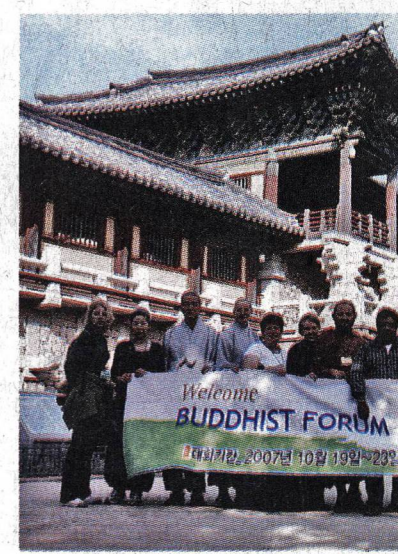
인구가 노령화되고 축소되는 것은 모두 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포교방편을 잘 못써서 그런 것이지요. 민중들과 유리된 불교가 결국은 소승불교로 비난을 받고 대승불교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한국불교도 이러한 점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재가불교가 활성화되어 민중과 함께 호흡하고 민중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행복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구미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재가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도를 수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며 그러한 해탈은 일상생활에서의 불법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관념적이고 고답적인 깨달음만 추구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의 계행과 실천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차원 높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재가불교, 생활불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문에 귀의하도록 문턱을 낮추어주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한 성불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통사찰이 없기 때문에 출가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구미의 예에서 보듯이 불교는 주로 재가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향후의 불교포교는 민중들과 같이 생활하며 그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이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여 세계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대회의 성격을 지난 1회 대회와 다른 점을 부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토론이라든가 뚜렷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세계 재가불교지도자들의 대체적인 성향 파악과 상호 소개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주제도 비교적 광범위하고 산만했습니다. 올해는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방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가불교가 이러한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재가불교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 근대에 재가불교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각국의 소개도 있을 예정이고 또 재가불교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가

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각국의 재가불교의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회를 거듭 할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이러한 대회의 개최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 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대회 일정과 장소,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십시오.



▲ 1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한국불교문화체현.

## 유럽 재가불교지도자들 대거 참석 “재가불자 자신감회복 계기 될 것”

작년 대회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토론이라든가 뚜렷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세계 재가불교지도자들의 대체적인 성향 파악과 상호 소개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주제도 비교적 광범위하고 산만했습니다. 올해는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방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가불교가 이러한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재가불교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 근대에 재가불교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각국의 소개도 있을 예정이고 또 재가불교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가

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각국의 재가불교의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회를 거듭 할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이러한 대회의 개최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 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대회 일정과 장소,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십시오.

20일에는 전체 일정이 끝나지만 일부 외국대표자들은 한국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더하기 위해 하루나 이틀 더 체류할 예정입니다.

▶ 참가국과 인원, 프로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 등 구미 여러 나라와 아시아 일부국가의 16개국 30여명이 참석합니다.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순수재가불교운동을 하는 분들에서 출가승려까지 다양합니다. 교수나 의사도 계시고요.

▶ 이번 대회의 준비기간과 과정, 그 밖의 고충이 있으셨다면..

작년 1차 대회 때에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재가불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불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요. 물론 올해도 대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대회를 거듭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국제적 네트워크가 갖추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대회를 유치할만한 불교계의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미나장은 물론이고 이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토론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것에 미처 눈을 돌리지 못했던 탓이지요.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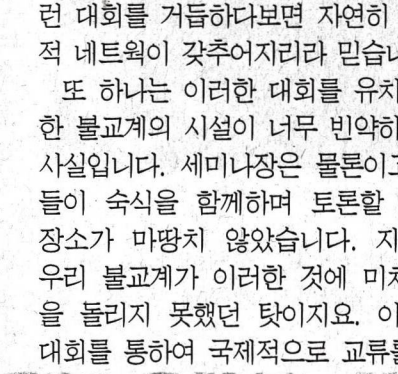
들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 불교문화교류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이고 나아가서 세계불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갖추어짐으로써 한국불교의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고요.

▶ 앞으로 교계와 종단, 교도 여러분들께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신다면..

인타까운 것은 우리불자들이 학술대회나 미래의 불교운동의 향방을 모색하는 이러한 포럼에는 동참하지는 분이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신생활에는 비교적 열심이시지만 불교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고 불교의 문화적 풍토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대회에는 거의 무관심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불자들이 표피적인 신생활을 한다고도 할 수 있지요. 사상적 기초가 확실하지 못한 믿음은 맹신에 가깝습니다. 불자들이 이러한 대회에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우리 불교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지고 이 사회에 바른 불교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토양이 다져질 수 있겠고도 말입니다.

아무쪼록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불사라는 것이 반드시 큰 건물을 세우고 불상을 크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회에 동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는 것도 큰 지혜를 얻고 복업을 쌓는 일입니다. 지혜있는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 1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부산 정각사 참배



▲ 1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부산 정각사 참배

20일에는 전체 일정이 끝나지만 일부 외국대표자들은 한국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더하기 위해 하루나 이틀 더 체류할 예정입니다.

▶ 참가국과 인원, 프로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 등 구미 여러 나라와 아시아 일부국가의 16개국 30여명이 참석합니다.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순수재가불교운동을 하는 분들에서 출가승려까지 다양합니다. 교수나 의사도 계시고요.

▶ 이번 대회의 준비기간과 과정, 그 밖의 고충이 있으셨다면..

작년 1차 대회 때에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재가불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불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요. 물론 올해도 대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대회를 거듭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국제적 네트워크가 갖추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대회를 유치할만한 불교계의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미나장은 물론이고 이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토론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것에 미처 눈을 돌리지 못했던 탓이지요.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어만

▶ 앞으로 교계와 종단, 교도 여러분들께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신다면..

인타까운 것은 우리불자들이 학술대회나 미래의 불교운동의 향방을 모색하는 이러한 포럼에는 동참하지는 분이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신생활에는 비교적 열심이시지만 불교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고 불교의 문화적 풍토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대회에는 거의 무관심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불자들이 표피적인 신생활을 한다고도 할 수 있지요. 사상적 기초가 확실하지 못한 믿음은 맹신에 가깝습니다. 불자들이 이러한 대회에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우리 불교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지고 이 사회에 바른 불교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토양이 다져질 수 있겠고도 말입니다.

아무쪼록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불사라는 것이 반드시 큰 건물을 세우고 불상을 크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회에 동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는 것도 큰 지혜를 얻고 복업을 쌓는 일입니다. 지혜있는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 1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부산 정각사 참배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주소 : 강남구 역삼2동 776-2  
문의 : 02)3452-7485 (016-651-8053)

##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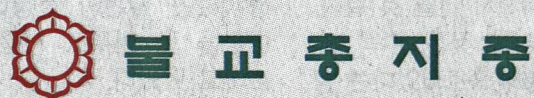
총지종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총비용의 15~20%)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정방문 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 문의 : 02)3452-7485(016-651-80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

# 제8회 전국불교음악제, 제주 약천사에서

## 총지종 등 국내·외 18개 합창단 참가



제8회 전국불교음악제가 오는 10월 9일 제주 약천사(주지 고봉 스님)에서 개최된다.

제주의 불교와 역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제는 부처님 16제자 중 한명인 발타라존자가 탐몰라주에 정착, 불법을 펼쳤다는 설에 기원을 둔 제주의 불교 전래에서부터 4·3 항쟁 등 제주의 아픔, 이를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을 발원하는 무대로

2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흥영희(사) 삼보불교음악협회 제주지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는 전국 최대 찬불가 잔치인 '전국불교음악제'의 성공을 위해 도내 합창단과 사찰·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천사 부주지 성원 스님도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지역 합창단의 역량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기존 '전국불교합창제'가 뮤지컬 형식을 도입하면서 명칭을 '전국불교음악제'로 변경됐다.

대회를 주최하는(사)삼보불교음악협회(이사장 운문 스님)와 약천사는 최근 약천사에서 관계자 회의를 열고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 중보통신원 워크숍 개최 사원간 정보공유, 화합 결의

중보 통신원 워크숍이 9월 23일 서울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통신원들은 중보 기사 발굴과 참여를 통해 전국 각 사원간 정보 공유와 화합을 도모할 것을 결의했다.

중보 편집팀 이인성 회장은 "3년 전 편집팀이 결성될 때 많이 미약했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부한 결과 이제는 많이 향상됐다"며 통신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워크숍엔 불교방송 김봉래 기자 초청 편집실무 강좌도 열렸다.



권순복 보살  
(영천 단음사)

▶총지종과 인연 맺게 된 계기는?  
'86년 영천에서 단칸방에 살다가 내 집을 장만해 이사하는 날 당시 인덕서원당 일대 신행 전수님이 처음 찾아오셨 습니다. 무작정 돈 천원을 달라하시더니 밥그릇에 넣고는 가정불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정성껏 축원해 주시는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불연이 없다가 전수님을 뵈 이후로 오랜 인연이 돼 오늘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 신행체험 46

일신행 전수님의 가르침대로 늘 향송합니다. 직장을 다니느라 새벽정승을 합니다. 월 초불공때 정시를 못지키는 경우는 새벽이든 밤중이든 시간이 나는대로 서원당을 찾아 정진합니다. 피치못해 불참할 때엔 미리 회사를 하고 전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동안 얻은 공덕이나 가피가 있다면?  
입교한 지 십년이 넘으니까 해태심이 덜더라고요, 절이나 교도들 허물도 자주 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집도 안정이 됐다 싶어서 사원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탓인지 점점 몸이 안좋아지다가 급기야는 큰 병이 들었죠. 참회의 마음이 들면서 다시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병증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은 물론이구요.

▶수행과 불교에 대해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수행을 한다는 사람은 자기배려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

의 허물보기 전에 우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자기수행과 함께 체험과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개선되지 않을테니까요.

▶앞으로 소원하는 것은...  
큰 병을 앓고 나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욕심없이 남에게 폐 안끼치고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요즘 제 직업인 병원 상담역의 경험을 살려 야간 대학을 다니며 노인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회 복지사가 돼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종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종단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고 금방 증득되는 게 많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교세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불법과 진언수행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종단 내에서 교화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세상사는 이야기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길었다. 예년에는 8월 중순만 되면 가을 바람이 따가운 여름 햇살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살짝 불어 따위를 식혀 주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다 가도록 여름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기세 좋게 그냥 버티고 있다. 긴긴 여름을 지냈는지 가을이 그 어느 때 보다 기다려진다.

파란 하늘에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뭉게구름이 손에 잡힐 듯 아름답고 사과나무에도 빨갛게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은 울 듯 말 듯,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 오래 만나지 못한 옛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듯 이렇게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때 맞춰 미국 발, 금음 악제가 걸친 탓인지 올 여름의 끝자락은 더욱 무겁고 끈적거리는 것이 마치 깊은 늪에 빠지기도 한 듯 헤어지기 힘들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탓인지 올 추석은 몸과 마음이 더욱 지치는 것 같았다.

추석 연휴 다 지나고 오히려 한가한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갑자기 허리가 뜨겁하면서 아픈 시작 한다. 절에서 불공 드리는 보살님 몇 분도 허리가 아파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다. 추석의 후유증이 곳곳에서 보인다. 누구나 세월을 비껴 갈 수 없는 것 같다.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가을을 기다리면서도

위에 퍼부으며 기세를 꺾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가을은 우리들에게 찾아 오려다가 여름의 당당함에 놀려 어디선가 빈틈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름의 어이 없는 느긋함에 묵묵히 기다려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위를 둘러 보면 그래도 가을은 벌써 소리 없이 우리 옆에 와 있다. 가을 꽃들이 서둘러 찾아온 것이다.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홀로 피어 있는 진 분홍색과 꽃, 길 양쪽에 끝없이 피어 산들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드디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고 있다. 아! 이 행복함, 새털구름, 뭉게구름, 비늘구름 다 찾아와 본다. 가을은 그 자체가 고운 빛깔로 가득 차 있다. 길가 깨어진 돌 틈에서 가냘픈 몸짓으로 비집고 올라와 드디어 작은 맨드라미 꽃을 피워낸 그 강인함, 비록 쓰레기 통 한쪽 모서리에서 위대한 삶을 이어 나가던 강아지풀이었지만 드디어 꽃을 피워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그 경이로움...

세상에는 온갖 아름다움이 넘쳐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다. 밝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무겁게 짓눌린 세상에서 힘겹게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서 결정 지어 지는 것이다. 타인이 내게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마음에 따라 이세상이 행복해 지기도 하고 불행해 지기도 한다. 오직 결정은 내 마음이다.

-박묘정

### 행, 불행은 마음에서

겨우 두 장 남은 달력을 넘겨 보는 내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오고 있다.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 기운이 퍼져 온다. 손 발이 점점 차 지는 느낌이다. 급년도 어느새 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이 열리고 있다. 손 발을 막 비벼 본다. 조금 따뜻한데 내 마음도 차츰 녹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여름이 시간의 흐름을 붙잡아 두고 싶은 내 마음을 대신해 주고 있다. 여름은 아직도 따가운 햇살을 대지

바람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이름조차 모르는 갖가지 야생화들. 가을 꽃은 청초한 아름다움이 있다. 꽃을 보는 우리들 마음도 가을꽃을 닮아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다.

청초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고운 가을 꽃을 찾아 떠나고 싶다. 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 오래된 옛 친구와 함께라면 더욱 좋겠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친구가 아니라도 좋다. 우리 나이를 초월해서 가을 꽃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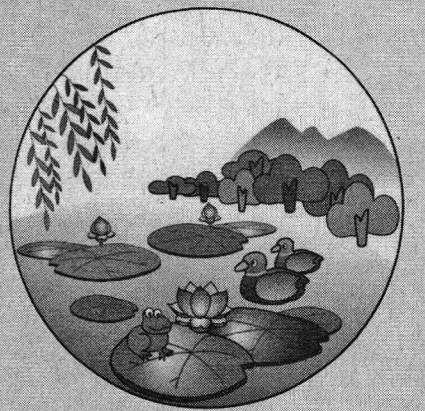
### 만가라 세상 '다르다' '틀리다' 는 다르다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는 이 두 단어... 하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두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같지 않다는 것. 모든 사람들의 의도가 다르듯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틀리다'는 것은 시험 문제의 정답처럼, 어떤 한 가지의 정답이 있거나, '옳음'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 그것에 부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틀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다르다'라는 말을 써야 하는 너무나 많은 상황에 아무렇지 않게 '틀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꽤 오래 전에, 이러한 차이점을 깨닫고 나서 이 표현을 제대로 쓰려고 주의하다 보니, 정작 '틀리다'라는 표현을 써야 할 상황은 그리 많지 않았습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 마찰, 그리고 또 사람에게 의해 화가 나는 것 또한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을 '틀리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기에 생기는 것들은 아닌지... 앞으로, '틀리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 상황이 '틀리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적합한지... 아아... '틀리다'라는 표현을 써야 할 상황보다는 '다르다'는 표현을 써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을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받아 들일 수 있다면 이 세상살이가 한층 더 부드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정화(총지사)



##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보급



불교 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불교 총지종 통리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 불교총지종통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

# Buddhist Forum

##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The Philosophy of Lay Buddhism &  
Lay Buddhist Activity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

- 재가불교의 철학
- 근현대 재가불교운동
- 재가불교의 국제적 협력방안

- 대회기간 | 2008년 10월 16일(목) ~ 20일(월)
-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룸(올림픽공원)
- 문 의 | 02)508-8933, 552-1080~2

주최 · 불교총지종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대학교